

주체조선의 핵공격능력을 비상히 강화하는데서 이룩한 또 하나의 사변 새형의 대륙간탄도로켓 대출력발동기지상분출시험에서 대성공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서해위성발사장을 찾으시여 새형의 대륙간탄도로켓 대출력발동기지상분출시험을 지도하시였다



1 번 에 서 계 속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국방과학연구소와 주체적핵무력건설에서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을 창조한 오늘의 대승리는 우리 당의 끝없는 공격적선의 제일 제현자이며 그 어떤 시련과 난관앞에서도 주호의 동요 없이 자기 힘만 믿고 일떠서는 굳센 의지의 소유자, 자강력의 강자, 당정책결사관철의 투사들이 우리의 미더운 국방과학자, 기술자들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 드리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제서 세계의 대륙간탄도 로켓에 보다 위력한 핵탄두를 장착하고 미국본토를 비롯한 지구상 그 어디에 있는 악의 소굴이든 우리의 타격 권안에 두고 이 행성에 다시는 소생하지 못하게 제가루로 만들어놓을수 있게 되였다고 하시면서 미제의 가증되는 핵위협과 전횡에 대처하여 핵공격수단들의 다종화, 다양화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여 핵에는 핵으로 단호히 맞서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국방과학자, 기술자들이 우리 당의 병진조선과 핵무력건설상을 높이 받들고 무궁무진한 창조적힘을 총폭발시켜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천만년미래를 굳건히 담보할 주체무기, 주체탄연구개발과 생산에서 다계단으로 변을 일으켜나감으로써 최고사령부의 핵병기창을 더욱 역척같이 다져 나가리라는 크나큰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정치정보단